

셋째, 꽃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꽃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름의상'은 구원의 완성이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꽃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좇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처럼 하늘의 꽃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열매도 분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꽃대를 향한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꽃대를 향한 신앙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84장 다 같 이

1.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2.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 하소서
3. 다니다가 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후렴]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 같 이

추 도 예 배 순 서 지

예배의부름 다 같이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추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80장 다 같이

1.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빌 3:7-14절 다 같이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 씀 꺾대를 향하여 인도자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도예배를 통해 고인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가치관이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은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 원했고 닮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짚어짐은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행동입니다.